

텔레비전 드라마 수용자의 가족관련 이미지에 관한 수용행태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V viewers' behavior on receiving family-related images reflected in
soap operas and the determinants on it

우석대학교
부 교 수 이 승 미**
한국소비자보호원
팀 장 최 은 실
한국소비자보호원
차 장 박 미 희
서울대학교
강 사 구 혜 령

Woosuk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Seung Mie, Lee
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Deputy Director : Eun Sil, Choi
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Senior Manager : Mi Hee,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 Hue Ryoung, Koo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 II. 선행연구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본 연구는 2006년도 보건복지부 연구지원에 의해 수행된 보고서의 일부임.

** 주저자, 교신저자 : 이승미 (smlee@woosuk.ac.kr)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V viewers' behavior on receiving family-related images reflected in soap operas and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TV viewers' family-related value and TV viewers' behavior on receiving family-related images reflected in soap operas with empirical dat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500 adults aged 20-49 living in Seoul area for 3 days(January 17 to 19 of 2006). Statistical methods used were frequency, percentag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V viewer's family-related values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fluenced the family-related image reception behavior. Especially viewers' values about child wa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affecting TV viewers' receptions of family-related images reflected in soap operas.

Key Words : 수용자의 인식행동(reception behavior), 자녀관(values about child), 가족관련 가치관(family-related values), 드라마(soap drama)

I. 문제제기

사회가 변화하면서 가족에 대한 정의나 가족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해가고 있다. 부부중심의 혈연 또는 법적 관계에 의해 형성된 자녀가 함께 하는 전통적 의미의 핵가족 개념에서, 법적 혹은 혈연적 관계를 넘어서 '친밀한' 관계의 의미가 가족의 중요한 기준으로 대두되고 있다(변화순·최윤정, 2004).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가족구조의 근간을 이루어 왔던 핵가족 구조가 무너지고, 다양한 모습의 가족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가족의 출현 배경에는 가족 전체의 삶보다는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의 등장이 있다. 가문의 명예를 중요시 했던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이 약화되고 개인의 권리와 자아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대안적으로 이혼이 증가하고, 동거부부, 독신가구로 지내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서도 자식을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변화순·백경희·김현주, 2000).

이와 같은 가족의 변화는 나와 주변 사람

들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지만 텔레비전이라는 영상매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가 될 뿐 아니라 텔레비전에서도 보편적인 요소로 등장한다(이은미, 1993). 특히 텔레비전 드라마는 현실세계의 가족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구성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세계를 현실인 것처럼 각색, 재현하면서 드라마를 통해 경험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텔레비전은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매체이다. 따라서 텔레비전 드라마에 등장하는 가족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현 가족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동시에 텔레비전은 사회변화의 주도자가 되기도 한다. 수용자들은 드라마에 의해 표현되고 전달되는 거짓 유사환경을 실제의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드라마에 나타난 방식대로 사회현실을 구성하기 때문에(Gerbner et al., 1980, 이은미에서 재인용), 텔레비전 방송이 사물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방법에서 가치판단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구성원들인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들이 드라마에서 나타난 가족관련 이미지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으며, 이 수용과정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은 무엇인가에 관해 탐색하고자 한다. 기존의 텔레비전 드라마 관련 연구들은 주로 드라마의 텍스트 분석 및 내용분석에 치중하여 왔는데(김선남·장해순·정현욱, 2004) 이는 타학문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가정학에서의 대중매체나 텔레비전 수용자의 매체 수용 혹은 소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미디어의 텍스트 분석이나 내용분석도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될 수 있지만 수용자의 하위문화적 특성이나 성별, 가치관 등에 따른 텍스트의 수용과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대상별 미디어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급속한 출산율의 하락과 고령화의 가속화, 이혼 증가, 다양한 가족의 증가 등 가족관련 사회현상이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가족관련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 수용자를 능동적인 메시지 해독자 및 의미 창출자로 간주하여 수용자의 가족관련 가치관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드라마의 수용과정의 차이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자의 가족 관련 가치관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둘째, 수용자는 드라마에 나타난 가족 관련 이미지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셋째, 수용자의 가족 관련 가치관은 수용자의 드라마 수용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선행연구고찰

1. 가치관의 변화 : 결혼관 및 자녀관을 중심으로

본 절에서는 개인의 가치관, 특히 결혼관과 자녀관에 초점을 두고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가치관의 변화 추이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한국사회는 모든 남녀가 일정 연령에 달하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보편혼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결혼관이 점차 변화하여 누구나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결혼에 대한 절대적 가치가 개인에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대적 가치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결혼에 대한 가치를 조사한 통계자료, 선행연구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결혼에 찬성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부정적 태도나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중립적 견해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장혜경 외(2004), 김승권 외(2004)).

결혼관에 대한 변화의 추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시대별 변화 추이는 청소년, 부모, 조부모의 견해를 비교함으로써 잘 파악될 수 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부모로 갈수록,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응답은 청소년으로 갈수록 높아져 세대간 결혼관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연도에 관계없이 남성이 여성보다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2002년의 경우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에서 여성의 응답률이 남성에 비해 훨씬 더

높아 결혼에 대한 중립적-유보적 견해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는 기혼인 경우가 미혼에 비해, 그리고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하지 않은 경우가 취업한 경우보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자녀에 대한 가치 역시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가계계승, 노동력 창출, 노후부양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녀가 매우 중요시 되었고, 재산과 동등한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대 산업사회에서는 많은 수의 자녀는 부부의 자녀양육부담을 증가시키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의해 자녀를 노후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 자녀에 대한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김승권 외, 2004). 아울러 한국사회에서의 자녀교육비는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자녀의 수' 보다는 '자녀의 질'을 중요시하는 소자녀관이 강조되고 있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김승권 외, 2003)를 보면, 결혼 후 자녀를 갖는 것에 관해 전체 응답자의 78.5%가 결혼 후 자녀가 꼭 있어야 하거나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의 42.0%가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31.4%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여성은 21.7%, 남성은 17.4%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 후 가족생활에 있어 자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자녀가치관을 조사한 연구결과(김승권 외, 2004)를 보면, '부부가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1991년 90.3%, 1997년 73.7%, 2000년 58.1%, 그리고 2003년에는 54.5%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인다. 이에 반해 '자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는 1997년 16.6%에서 2003년에 32.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3년의 경우 '반드시 있어야' 하거나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합하면, 86.8%가 자녀출산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견해는 감소하는 반면, '자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선택적 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에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기혼여성이 전체 중 그 비율은 적지만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편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척도로 구성하여 조사한 선행연구(장혜경 외, 2004)를 살펴보면, 우선 '불임이 아닌데도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36.5%가 찬성, 보통이다가 23.3%, 반대가 40.2%였다. '아이는 적어도 한명은 있어야 한다'에 대해 찬성비율은 59.2%이며, '아이가 적어도 두명은 있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67.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는 대체로 2명이 이상적이라는 견해가 다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주는 기쁨과 보람은 세상 어느 것에도 비할 바가 못 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68.8%가 찬성하고 있으며,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다'에 대해서도 68.4%가 찬성하였다. 이 두 항목은 자녀에 대한 가치를 질문한 것으로서, 대부분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은 꼭 낳아야 한다'에는 18.5%가, '부부가 원치

않아도 부모님이 원하시면 자녀를 꼭 낳아야 한다'에는 17.6%만이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아들선호에 대한 태도는 표면적으로는 많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관해 1991년(40.5%)에 비해 2003년(14.1%)의 경우 유배우부인의 응답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김승권 외, 2004)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또한 손자녀 출산에 대한 부모님의 영향 역시 배제되고 있어 자녀출산이 가계계승이나 혈통 지속 등의 의미를 갖던 과거와는 달리 자녀의 정서적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개인의 의식과 TV와의 관계

오늘날 텔레비전은 대중매체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친근하고 영향력이 큰 매체이다. 불특정 다수와 광범위한 지역에 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개개인 수용자 뿐 아니라 사회에도 커다란 파급효과를 과시한다. 특히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시청률이 가장 높은 드라마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높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 하에, 개인의 의식이나 가치관과 대중매체-특히 TV 드라마를 중심으로-와의 상호관계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텔레비전의 사회적 역할

리프만(1921)은 매스미디어의 위력에 대해 '우리들의 머리 속에 담겨 있는 이미지는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얻어진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서술한 바 있다. 이는 곧 미디어가 사회 현상에 대한 우리의 지각을 형성하는 매개체가 되며 우리의 순간적인 감각의 경험을 넘어 거대한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력을 가진 매체 중에서도 현대사회의 중심이 되는 것은

텔레비전인데, 텔레비전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 매체이며 가장 특징적 산물이다. 또한 텔레비전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보를 주는 통로 중의 하나이며 텔레비전을 보는 수용자는 이 통로가 제공하는 정보를 얻어서 해석하고 우리의 경험과 상상력을 형성한다(박정옥, 2004).

특히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시청률이 가장 높은 드라마는 현실세계를 사실적으로 재구성하는 차원을 넘어 현실의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세계를 마치 현실인 것처럼 각색, 재현함으로써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높다고 본다. 그러므로 드라마에서 표현되고 전달되는 내용은 언론매체에 의해 형성되는 거짓 유사환경이며, 수용자들은 이것을 실제의 환경처럼 받아들이고, 언론매체가 제시하는 텔레비전 드라마 텍스트의 의미가 허구적이고 가시적인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짐으로 수용자는 텔레비전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김만기, 1999).

2) 드라마 수용과정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드라마 수용과정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성역할이론 중 학습이론에 근거하여 드라마의 성역할 고정관념, 즉 왜곡되고 정형화된 성역할 묘사가 모방이나 강화 등의 학습과정을 통하여 수용자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논거를 확대해 본다면 드라마에서 묘사되고 있는 가족에 대한 모습이나 가족 속에서의 가족관계나 가족생활 묘사 역시 수용자에게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전통적인 미디어 연구를 지양하는 대안적 접근을 통해 수용자가 처한 사회적, 문화적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수용과

정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즉 이들 대안적 접근들은 질적 방법론을 동원하여 수용자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천, 의식 및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 수용의 의미를 탐구하였다.

국내에서도 텔레비전 드라마 수용 및 해독 과정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시 거주 2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훈순·박동순, 2002)에서는 여성들의 페미니즘 의식과 텔레비전 인식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즉 여성들은 사회적 계층구조(연령, 학력)별로 서로 다른 페미니즘 의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호하는 여성상도 다르고 또 이를 통하여 텔레비전 드라마를 상이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기성(1997)의 연구에 의하면 수용자들은 인구사회학적 변인(교육여부, 성별, 소득수준, 직업여부, 결혼여부 등), 심리적 태도(적극성, 행복성취 수단, 선호여인상, 직업과 육아에 대한 태도) 등에 따라 드라마의 성역할 과정을 달리 수용하였다(김희정, 2000에서 재인용).

한편 최근에는 드라마의 수용과정을 질적 방법으로 접근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해 <여인천하>에 대한 남녀간의 해독차이를 분석한 선행연구(양정혜, 2002)에 의하면, 수용자의 해독은 상당히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연구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성별이나 교육정도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지배적 가치관에 의존해서 선호해독이 일어나는 영역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남성과 여성간의 권력관계에 대한 해독의 경우 여성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가부장적 시각에서 남녀관계를 조망하는 선호해독 형태를 보여주었다. 또한 이오현(2002)은 드라마 <보고 또 보고>의 텍스트와 수용자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는데, 15

명의 여성 시청자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드라마에 대한 자신들의 의미를 생산해 내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생산한 다양한 해석들 중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은 드라마가 반영한 지배가치 체계를 궁극적으로 강화하는 해석들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미디어 텍스트는 단독으로는 아니지만 수용자의 의미 생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결과를 본 연구에 적용해 볼 때, 드라마의 텍스트가 수용자에게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수용자의 의미생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과 맥락 하에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가족이 모습을 수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조사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50세 미만 남녀 500명이다. 연령을 20대에서 40대로 한정된 것은 이 연령대를 통상적인 가임연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인구총조사'의 서울 지역 연령별 분포를 기준으로 연령별로 할당된 다음 각 연령별로 남녀 같은 수로 분포되게 조정하였다. 조사는 2006년 1월 17일에서 19일 사흘간에 걸쳐 온라인 설문업체인 (주)아이클릭을 통해 실시되었다. 본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하에서 $\pm 4.38\%$ 이다.

2. 분석방법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치관, TV

시청시간, 수용행태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고,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크론바하(Cronbach)의 알파를 이용하였다. 또한 수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조사도구의 작성

수용자의 가치관은 자녀관, 결혼관, 육아관, 여성역할관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각 변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자녀관은 8문항으로 구성된 자녀선호 변수와 7문항으로 구성된 자녀기피 변수로 구성하였다. 자녀관을 자녀선호 변수와 자녀기피 변수로 구분한 이유는 이 두 변수가 연속선상에서 볼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변수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척도의 신뢰도는 각각 .88과 .90이고,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녀선호 변수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선호도가 높으며, 자녀기피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를 기피하는 경향이 크다고 하겠다. 결혼관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고 결혼에는 적령기가 있는가에 대한 2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신뢰도는 .82이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인 결혼관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여성역할관은 기혼여성의 직장파와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5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신뢰도는 .82이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직장생활 보다는 가정생활에 더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육아관은 자식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 2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신뢰도는 .61이고, 5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식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 수용자의 수용행태는 가족에 대한 가족드라마에 대한 인식, 가족에 대한 드라마의 영향력이라는 변수를 선정하여 살펴보았는데, 각 변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가족드라마에 대한 인식은 드라마에 나타난 결혼, 출산, 가정에 대한 모습을 수용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변수로,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78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자가 드라마에서 나타난 가족, 결혼의 모습을 전통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드라마의 영향력은 드라마를 보면서 자신이나 자신의 가정생활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가를 측정하는 변수로,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90 이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드라마로부터 부정적인 영향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와 같다.

우선 조사 대상자는 남, 녀의 비중이 같으며, 연령 분포를 보면 20대가 38.0%, 30대가 32.8%, 40대가 29.2%를 차지했다. 결혼지위별로 보면 미혼은 전체의 43.0%, 기혼은 57.0%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00)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250	50.0	직업	전문직	85	17.0		
	여	250	50.0		사무직	212	42.4		
연령	20대	190	38.0		생산직	4	0.8		
	30대	164	32.8		판매·서비스직	44	8.8		
	40대	146	29.2		학생	48	9.6		
결혼지위 및 맞벌이여부	미혼	215	43.0		전업주부	77	15.4		
	기혼	285	57.0		무직	12	2.4		
	맞벌이	129	45.3		기타	18	3.6		
	홀벌이	156	54.7						
학력	중졸이하	1	0.2					200만원 미만	125
	고졸	98	19.6	200~300만원 미만				117	23.4
	전문대졸	67	13.4	300~400만원 미만				120	24.0
	대졸	283	56.6	400~500만원 미만	69	13.8			
	대학원졸 이상	51	10.2	500만원 이상	69	13.8			
				월평균소득					

이였으며 기혼 중 맞벌이 부부는 45.3%, 홀벌이 부부는 54.7%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이 56.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졸, 전문대졸, 대학원졸업 이상, 중졸 이하의 순이었다.. 직업은 사무직이 전체의 42.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직, 전업주부의 순이었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2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25.0%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400만원, 200만원~300만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24.0%, 23.4%로 나타났고, 400만원~500만원, 5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13.8%를 차지하였다.

IV. 결과분석

1. 수용자의 가치관

수용자의 가치관은 자녀관, 결혼관, 육아관, 여성역할관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표 2> 참조).

우선 결혼관을 조사한 결과, 결혼에는 적령기가 있고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문항에 다소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누구나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결혼에 대한 절대적 가치가 개인에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대적 가치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육아에 대해서는 육아가 부부 공동 책임이고 자녀는 가급적 부모가 키워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역할관을 조사한 결과, 취업 여성은 출산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거나 기혼 여성의 소득이 보조적이라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직장보다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직장에서의 아이 양육과 관련하여 너무 두드러지지 않게 행동해야 하며 맞벌이 가정에서 부부 중 누구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경우 여성이 그만 두는 것이 낫다는 문항에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기혼 여성의 직장생활에 보

다는 가정생활에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관은 크게 자녀 존재의 이유를 나타내 주는 자녀선호의 측면과 자녀를 기피하게 되

는 자녀기피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자녀선호의 평균점수가 자녀기피의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 낳기

〈표 2〉 수용자의 가치관

(N=500)

변수	문항	평균(표준편차)	
결혼관 (2문항)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3.68(1.104)	
	결혼에는 적령기가 있다.	3.48(1.060)	
	전체평균 : 3.41 신뢰도계수: .82		
여성역할관 (5문항)	여자는 직장을 다니더라도 출산하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좋다.	2.70(1.139)	
	여자는 직장에서 아이 양육과 관련하여 너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이 좋다.	3.26(1.067)	
	기혼 직장 여성은 직장보다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32(0.992)	
	맞벌이 가정에서 육아 등의 문제로 누군가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할 경우 여자가 그만 두는 것이 낫다.	3.33(1.097)	
	맞벌이 가정에서 여성의 근로소득은 보조적이다.	2.99(1.105)	
전체평균 : 3.11 신뢰도계수: .82			
육아관 (2문항)	가급적 자식은 부모가 키워야 한다.	4.43(0.809)	
	육아는 부부 공동 책임이다.	4.66(0.582)	
전체평균 : 4.54 신뢰도계수: .61			
자녀관	자녀선호 (8문항)	부모가 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으므로 자녀는 있어야 한다.	4.15(0.997)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식은 있어야 한다.	3.98(1.090)
		결혼생활 유지에 자녀는 필수적이다.	3.83(1.174)
		집안의 후손이 있어야 한다.	3.60(1.194)
		자녀가 주는 기쁨과 보람 때문에 자녀는 있어야 한다.	4.09(0.945)
		미래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자녀는 있어야 한다.	2.71(1.086)
		시민으로서 사회 성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자녀를 두어야 한다.	3.34(1.145)
		부모님(배우자 부모)이 원하시므로 자녀가 있어야 한다.	3.21(1.067)
	전체평균 : 3.61 신뢰도계수: .88		
자녀기피 (7문항)	육아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 낳기가 꺼려진다.	3.38(1.207)	
	보육료, 교육비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녀 낳기가 꺼려진다.	3.62(1.164)	
	아이 자체가 싫어서 자녀 낳기가 꺼려진다.	1.94(1.179)	
	부모 역할에 자신이 없어서 자녀 낳기가 꺼려진다.	2.50(1.212)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자녀 낳기가 꺼려진다.	2.84(1.273)	
	노후 대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자녀 낳기가 꺼려진다.	2.27(1.134)	
	부부생활에 방해가 되어서 자녀 낳기가 꺼려진다.	2.15(1.131)	
전체평균 : 2.67 신뢰도계수: .90			

를 기피하기 보다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녀 존재의 이유를 살펴보면, 부모됨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자녀가 주는 기쁨과 보람 때문이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에 부모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미래의 노후보장을 위해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에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자녀는 도구적 존재가 아닌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녀 낳기가 꺼려지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육아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 낳기가 꺼려진다는 응답이

높았고, 반면에 아이 자체가 싫어서 혹은 부부생활에 방해가 되어서 자녀 낳기가 꺼려진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나타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본 연구에서도 중요한 자녀기피원인으로 나타났고 있다.

2. 수용자의 수용행태 수준

수용자가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결혼, 가정, 자녀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드라마에 대한

〈표 3〉 수용자의 수용행태

(N=500)

변수	문항	평균(표준편차)
가족드라마에 대한 인식 (9문항)	요즘 드라마는 미혼자의 결혼을 독려하고 있다.	2.97(0.943)
	요즘 드라마는 기혼자의 출산이나 다산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2.82(0.912)
	요즘 드라마는 가정의 보호나 유지를 강조한다.	2.83(1.040)
	요즘 드라마는 바람직한 육아를 위한 아내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2.60(0.875)
	요즘 드라마는 바람직한 육아를 위한 남편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2.76(0.923)
	요즘 드라마는 화목한 가족을 강조한다.	3.09(1.016)
	* 요즘 드라마는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으려는 젊은이를 현명하게 그리고 있다.	2.75(0.976)
	* 요즘 드라마는 아이가 한 명만 있는 가정을 이상적이고 화목하게 그리고 있다.	2.62(0.920)
	요즘 드라마는 바람직한 육아방식을 보여준다.	2.62(0.820)
전체평균 : 2.69 신뢰도 계수 : .80		
가족드라마의 영향력 (5문항)	나는 드라마에서 결혼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 결혼하고 싶지 않다(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2.81(1.075)
	나는 드라마에서 결혼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결혼하고 싶지 않다(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2.96(1.105)
	나는 드라마에서 아이 없이 자유롭게 여유 있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아이 낳은 것을 후회한다).	2.57(1.093)
	나는 드라마에서 자녀 양육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아이 낳은 것을 후회한다).	2.73(1.112)
전체평균 : 2.77 신뢰도 계수 : .90		

* 이 문항은 역코딩하였음.

인식 수준과 가족드라마의 영향력 수준을 조사하였다(<표 3> 참조).

우선 가족드라마에 대한 인식 수준은 평균 2.69점으로 보통수준(3점)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드라마에 대한 인식의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자가 드라마 속의 가족, 결혼, 자녀의 모습을 전통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표 3>의 결과는 수용자가 드라마속의 가족, 결혼, 자녀의 모습을 전통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족드라마의 영향력의 수준은 평균 2.77점

으로 보통수준(3점)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드라마의 영향력의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자가 드라마 속의 가족, 결혼, 자녀의 모습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표 3>의 결과는 수용자가 드라마로부터 받는 영향력의 수준이 보통보다 약간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수용자의 수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수용자의 수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집단, 기혼집단, 미혼집

<표 4> 가족드라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500)

독립변수		종속변수=가족드라마에 대한 인식		전체		기혼		미혼	
		b	베타	b	베타	b	베타		
사회인구학적 변수	학력	-.120	-.046	-.033	-.013	-.010	-.004		
	소득	-.005	-.134**	-.008	-.191**	-.003	-.087		
	연령	.048	.078	.082	.102	-.090	-.085		
	성별 (여자=1)	.350	.036	1.165	.118	.130	.106		
	맞벌이여부 (맞벌이=1)	-	-	.847	.086	-	-		
	자녀수	-	-	.027	.002	-	-		
	향후결혼여부 (결혼=1)	-	-	-	-	-1.704	-.121		
	혼인상태 (미혼=1)	.279	.029	-	-	-	-		
TV 시청시간	평일	.138	.043	.072	.024	.417	.110		
	주말	.047	.026	.003	.002	.124	.067		
가치관	결혼관	-.087	-.034	-.130	-.052	-.047	-.018		
	여성역할관	.091	.077	.118	.101	.130	.106		
	육아관	-.475	-.116*	-.652	-.157*	-.079	-.020		
	자녀관	자녀선호	.252	.337***	.281	.354***	.229	.330***	
자녀기피		.093	.106*	.067	.075	.153	.174*		
상수		21.804***		20.795		20.076			
R ²		.141		.183		.169			
Standardized R ²		.119		.143		.118			
F-value		6.466**		4.529***		3.324**			

* p<.05, **p<.01, ***p<.001

※ 가변수 처리 : 성별에서는 여자, 맞벌이 여부에서는 맞벌이, 향후 결혼여부에서는 결혼, 혼인상태에서는 미혼을 기준으로 함

단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을 미혼과 기혼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은 결혼여부에 따라 삶의 경험이 다르고, 수용자들이 자신의 사회적 경험을 통해 드라마로부터 다양한 의미를 생산해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4>,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1) 가족드라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4>에 의하면,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회귀식에 포함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11.9%이고, 소득, 자녀선호, 자녀기피 변수가 가족드라마에 대한 인식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적을수록,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할수록, 자녀를 기피할수록 드라마에서 나타난 결혼과 가족의 모습을 전통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지위에 따라 가족드라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를 것으로 생각되어 각 집단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혼집단의 가족드라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소득, 육아관, 자녀선호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포함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14.3%였다. 기혼집단은 소득이 적을수록, 양육의 책임이 부부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할수록, 자녀를 선호할수록 드라마 속의 결혼과 가족의 모습을 전통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미혼집단의 경우에는, 자녀선호와 자녀기피 변수가 가족드라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회귀식에 포함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11.8% 이었다. 미혼집단은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자녀를 기피할수록 드라마 속의 가족의 모습을 전통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4>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족

드라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기혼, 미혼, 전체 집단을 통틀어서 자녀선호이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드라마속의 가족, 결혼의 이미지를 수용하는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가족드라마의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5>에 의하면,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회귀식에 포함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27.39%이고, 성, 혼인상태, 결혼관, 여성역할관, 자녀기피 변수에 따라 가족드라마로부터 받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결혼은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수록, 여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자녀낳기를 기피할수록 가족드라마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지위에 따라 가족드라마의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를 것으로 생각되어 각 집단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혼집단의 가족드라마의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 결혼관, 여성역할관, 자녀기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포함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25.9% 이었다. 기혼집단은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결혼은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수록, 여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자녀를 기피할수록 드라마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혼집단의 경우에는, 연령, 성, 결혼관, 여성역할관, 자녀기피가 가족드라마의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회귀식에 포함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31.0%로 이었다. 미혼집단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결혼이 절대적이 아니라고 생각할수록, 여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자녀를 기피할수록 드라마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표 5〉 가족드라마의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500)

독립변수	종속변수=가족드라마의 영향력	전체		기혼		미혼		
		b	베타	b	베타	b	베타	
사회인구학적 변수	학력	.063	.031	.112	.058	.164	.077	
	소득	-.001	-.036	-.004	-.134	.002	.061	
	연령	.013	.027	.052	.078	-.118	-.134*	
	성별 (여자=1)	1.22	.160***	.937	.126*	1.415	.182**	
	맞벌이여부 (맞벌이=1)	-	-	.469	.062	-	-	
	자녀수	-	-	.529	.081	-	-	
	향후결혼여부 (결혼=1)	-	-	-	-	-1.077	-.091	
	혼인상태 (결혼=1)	1.176	.153**	-	-	-	-	
TV 시청시간	평일	.087	.034	.029	.013	.350	.113	
	주말	.000	.000	-.033	-.024	.097	.064	
가치관	결혼관	-.553	-.278***	-.652	-.342***	-.505	-.238***	
	여성역할관	.191	.206***	.133	.151*	.238	.236***	
	육아관	-.147	-.045	-.412	-.121	.180	.055	
	자녀관	자녀선호	-.013	-.022	.038	.059	-.027	-.047
		자녀기피	.206	.300***	.192	.288***	.237	.329***
상수		7.473		8.490		5.588		
R ²		.290		.300		.350		
Standardized R ²		.273		.259		.310		
F-value		16.303***		7.385***		8.910***		

* p<.05, **p<.01, ***p<.001

※ 가변수 처리 : 성별에서는 여자, 맞벌이 여부에서는 맞벌이, 향후 결혼여부에서는 결혼, 혼인상태에서는 미혼을 기준으로 함

V. 결론 및 제언

텔레비전은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매체이다. 따라서 텔레비전 드라마에 등장하는 가족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현 가족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동시에 텔레비전은 사회변화의 주도자가 되기도 한다. 수용자들은 드라마에 의해 표현되고 전달되는 거짓 유사환경을 실제의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드라마에 나타난 방식대로 사회현실을 구성하기 때문에(Gerbner

et al., 1980, 이른미에서 재인용), 텔레비전 방송이 사물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방법에서 가치판단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구성원들인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들이 드라마에서 나타난 가족관련 이미지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으며, 이 수용과정에 미치는 수용자의 가족관련 가치관,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의 변수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수용자의 하위문화적 특성이나 성별, 가치관 등에 따른 텍스

트의 수용과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대상별 미디어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거나 저출산, 이혼 증가, 다양한 가족의 증가와 같은 가족 현상을 담고 있는 드라마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06년 1월 17일에서 19일 사흘간에 걸쳐 온라인 설문업체인 (주)아이클릭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조사자료는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검증,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자의 가치관은 자녀관, 결혼관, 육아관, 여성역할관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자녀관은 크게 자녀선호와 자녀기피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자녀선호영역의 평균점수가 자녀기피영역의 점수보다 높았다. 즉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녀 낳기를 기피한다기 보다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에는 적령기가 있고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문항에 다소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누구나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결혼에 대한 절대적 가치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육아는 부부 공동 책임이고 자녀는 가급적 부모가 키워야 한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서 육아관 역시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은 직장보다 가정과 자녀양육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경향이 높아 여성역할에 대한 가치관 역시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수용행태는 크게 가족드라마에 대한 인식과 가족드라마의 영향력변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가족드라마에 대한 인식이란 드라마에 나타난 결혼과 자녀출산의 모습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가족드라마의 영향력이란 드라마에 나타난 결혼과 자녀출산의 모습을 보면서 수용자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수용자는 최근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해 미혼자의 결혼이나 기혼자의 출산을 독려하거나 바람직한 육아 방식을 보여주는 측면이 약하고, 반면 젊은이를 현명하게 그리고, 1자녀 가정을 문제 없거나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낸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용자는 드라마가 비교적 전통적이지 않은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용자는 가족드라마로부터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드라마에서 결혼 생활이나 육아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할 경우, 출산보다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드라마에 대한 인식과 가족드라마의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가족드라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득, 육아관, 자녀선호, 자녀기피변수였다. 소득이 적을수록, 육아관이 보수적이지 않을수록, 자녀선호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기피수준이 높을수록 드라마속의 결혼이나 자녀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자녀선호변수가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였는데, 이를 통해 자녀의 존재와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수용자일수록 드라마속의 결혼이나 자녀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드라마의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 결혼여부, 결혼관, 여성역할관, 자녀기피변수였다.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결혼관이 진보적일수록, 여성역할관이 전통적일수록, 자녀기피수준이 높을수록 가족드라마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자녀기피변수가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

었는데, 이를 통해 자녀의 존재를 기피하려는 수용자일수록 드라마속의 결혼이나 자녀출산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수용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족관련 가치관이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드라마에 나타난 가족관련 이미지를 다르게 인식하고 드라마로부터 받는 영향수준도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결과는 시청자들에게 미디어 내용을 올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디어 교육은 시청자들에게 미디어 내용을 올바르게 인식시켜서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해독하고 메시지에 숨겨진 이데올로기를 발견하여 궁극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수용자의 드라마 수용과정에 관한 연구는 미디어 교육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수용자의 가치관과 수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탐색적인 연구였으므로 추후에는 연구 모형을 보다 정교하게 보강하여 수용자의 수용행태를 질적으로 분석하거나, 특정 드라마의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수용자가 가족관련 이미지를 수용하는 과정을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접수일 : 2006년 10월 15일
- 심사일 : 2006년 10월 18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11월 28일

【참 고 문 헌】

1) 김만기(1999). TV 드라마의 현실적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 <목욕탕집 남자들>을 분석사례로. 한국커뮤니케이션학 7,

209-235.
 2) 김선남·장해순·정현욱(2004). 수용자의 드라마 여성이미지에 대한 수용행태 연구. 한국방송학보 18(1), 76-115.
 3) 김승권 외(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승권 외(2004). 2003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김훈순·박동순(2002). 현실과 상징세계의 여성이 삶: 여성 TV 수용자의 인식을 토대로, 프로그램/텍스트 6호, 159-194.
 6) 김희정(2000). TV 드라마상의 성역할에 대한 여성 수용자들의 인식 차이.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박정옥(2004). 텔레비전 드라마의 갈등 표출과 사회적 의미-KBS 드라마 <꽃보다 아름다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변화순·백경희·김현주(2000).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9) 변화순·최윤정(2004). 가족정책 방향 정립 및 통합적 시행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0) 양정혜(2002). 성찰적 TV수용의 한계 : 남녀 집단간의 여인천하 해독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6(1), 268-299.
 11) 이오현(2002). 텔레비전 드라마 수용자 연구 : 다의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6), 96-126.
 12) 이은미(1993). 프라임 타임 드라마에 나타난 가족구조 분석. 한국방송학보 4, 167-184.
 13) 장혜경 외(2004). 저출산 시대 여성과 국가의 대응 전략. 한국여성개발원.